

# 주 안에서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8  
Aug. 2016  
Vol.4 No.8

- 교회뉴스 • 채플소식
- 중고등부 수련회
- 구역장 섬김의 날
- 간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 LA 213.232.3163 .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 중고등부 수련회

# 주 안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숙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2~13)".

7월 25일(월)~28일(목)까지 SANTA CLARITA 온누리 수양관에서 YOUTH SUMMER RETREAT이 있었다.

일련의 교회행사가 연결되어 아이들이 산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다. 아이들은 첫날부터 뜨겁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여리고 작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담았다. 우리 교회의 보석같은

청년 사역자들의 헌신 역시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차분하게 움직였다.

수련회에 빠질 수 없는 세족식이나 십자가 회개의 밤도 차근차근 치러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어서일까 채플이 셋으로 나눠 책임을 나눌 수 있어서일까 매일밤 채플별로 준비한 간식은 줄이고 또 줄여도 항상 넉넉했다. 많은 사역자분들 또한 찾아와 아이들을 응원해 주셨다.

세워진지 얼마 안되고 지리적 여건 또한 한뫼한 듯 다소 어수선했던 LA채플은 중

고등부 전원 참석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아직 어린 새싹이어서 이전의 모습과 새로 그러나 가슴 가득 차지한 하나님이 마음과 행동사이에서 충동을 일으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난 3년... 수련회의 순서 자체가 낯설었던 아이들은 이제 아주 익숙하게 스케줄을 쫓아왔고 몸이 적응한 것보다 더 많이 다듬어진 아이들의 신앙은 활짝 자라난 키보다 더 성숙해졌다. <8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주안에게  
힐링 캠프  
IC Healing Camp  
주안교회 ICC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9/18(주일)-21(수) Big Bear Pine Crest

■ 구역장 섬김의 날



♥ 예수님 본받아 섬김의 삶을 함께 배워요 ♥

지난 8월 19일(금요일) 저녁 7시 벨리채플, 25일(목), 26일(금) 저녁에는 LA채플과 플러튼채플에서 각각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었는데, 단순히 매월 갖게 되는 월례모임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들을 섬기는 본과 모범을 보이는 축제의 장이었던 것이다.

단순히 월례모임인줄 알고 삼삼오오 모였던 구역장들은, 친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에 “어! 오늘은 무슨일이지?” 하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한 줄로 줄을 서서 들어오라는 말에 따라 줄지어 들어갈 때, 온 교구장님들과 사역자님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반기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셨다.

몇 주 전부터 계획을 하고, 맛있는 음식과 후식을 준비하여, 구역을 돌보느라 수고하시는 구역장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실천에 나선 것이었다. 일찍부터 교구장님들 부부께서 나와 풍성한 음식과 디저트까지 준비하였다고 하니 그 사랑과 정성은 더 이상 설명해서 무엇할까.

식사도중 이어진 사역자들의 찬양(팬플릿 기악 3중주, 이규화 전도사 독창, 사역자 합창)은 음식의 맛을 더한층 높여 주었고, 듣는 귀를 즐겁게 해 주었다. 또 중간중간 여러분의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님들로부터 지금까지 구역과 교구를 섬기면서 겪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 듣는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모두가 강한 도전을 받기도 했다.

특히 플러튼채플에서는 칠순을 맞이한 이예스터 권사를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마련해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 이어진 구역장 지침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을 재 정비하고, 앞으로 구역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었다.

최혁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교구장, 구역장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질서에 따라 교회가 체계 있게 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서로 예의 있게 행동해 주실 것과 아울러 교육 부에도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권면했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은 물론, 선물까지 준비하여 구역장들을 섬기



고자 하는 주안에교회의 교구장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모든 구역장들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구역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감사의 찬양과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 힐링캠프 준비모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3박4일 동안 빅 베어 파인크래스트에서 있을 예정인 제3기 주안에 힐링캠프를 위한 첫번째 준비 모임이 지난 8월 21일 주일 주안에교회 LA채플에서 있었다.

오후 4시부터 뜨거운 열기로 60여명의 써포터스와 교역자들이 모여 시작된 이 준비 모임은 김경일 장로의 기도에 이어 이현욱 목사의 "올라가라"는 주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말씀과 함께 합심 기도가 있었고 정도영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휴식시간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에 이어 이방길 장로의 팀멤버를 위한 교육시간에는 세밀하고 민감한 주의사항들이



다루어 졌으며 각 서포터즈들의 개인 소개와 각 부서소개, 부서발표와 부서 모임에 이어 찬양과 최혁목사의 기도로 준비모임은 6:45에 마무리 되었다.

담임목사인 최혁목사에 의해 내용이 검토되고 보완되어 기존의 TD나 LTD와 순서와 내용과 차별화된 주안에 힐링캠프는 참가자 한 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자신을

위하여 그 땅 엘벤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제 3기 주안에 힐링캠프의 예상 참가인원은 200명으로 Seekers(칸디)와 Supporters (팀 멤버)의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이선은 항상 환영한다. (문의: 이방길 장로 213-407-4007)

| 박창신 기자 |

■ 교회대항 야구리그

주안에교회 야구팀은 8월 20일(토) 오후 3시 AZUSA MEMORIAL PARK (320 N, ORANGE AVE.)에서 에너하임익스체인지 교회와 교회대항 리그전 첫 시합을 가졌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VILLAGE에 자리잡은 PARK분위기는 토요일 오후임에도 분주하지 않고 몇몇의 PICNIC 하시는 팀으로 정겨웠고, 맑은 편에 위치한 야구장에서는 선수들의 열띤 응원과 함성에 그날의 열기에 더해 후끈거렸지만 감사하게도 살랑거리는 약간의 바람이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안에교회 팀은 매회 강공으로 점수를 많이 획득하고 HOME 으로 입성하여 LUCK이 함께 해주는 듯... 우리는 우수한 실력으로 상당한 실력의 상대편을 압도 3회까



지 9대 6으로 앞서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4회말 투수의 부족으로 역전의 패배를 겪고야 말았습니다.

주안에교회 선수들의 연령층은 다양하며 까만 선글라스를 낀 오철호 감독님과 김진경 팀장님! 경기 하나하나 주시하며 선수들을 코치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교역자님들 주말에 체력단련 힘쓰시며 시원한 한타

로 STRESS 썩~악!!... 건강도 챙기시니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팀 교회가 후원하는 장애인단체에 \$1000을 DONATION한다고 합니다. 운동도 하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면 어떨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 및 후원문의: 야구 팀장 김진경 피택 안수집사 213-545-4878) | 오윤선 기자 |

제3기 주안에빛을 시작하면서/ 인도자들 소감

주안에빛은 주안에교회 리더쉽훈련과정인 '주안에양육'에 속한 신규약 성경개론 훈련으로 부교역자의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90일 통큰통독"을 교재로,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하고, 성경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제3기 주안에빛은 8월 30일부터 11월 22일 까지 매주 화요일, LA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박현동 목사 복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기대



이현욱 목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주안에 빛이 있었고, 주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



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안에빛 과정이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 임마누엘 성가대 정기연습

임마누엘성가대(대장 장기연 장로)에서는, 매월 첫 주 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성가대원들이 하나 둘씩 친교실에 모여, 각 파트별로 돌아가며 준비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먹고, 7시부터 성가대실에서 월 정기연습을 합니다. 매달 드릴 찬양곡을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주일날 아침과 오후에 하는 연습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정도영 장로로부터 자세한 발성과 악상 기호등에 대해 지도를 받으므로 훨씬 자신 있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가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10시까지 이어지는 찬양 연습시간 중간에는, 그 달에 생일을 맞이한 대원들을 위해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케익을 나누며, 주일날



갖지 못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함으로 훨씬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많은 성가대원들이 디즈니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유학원 코랄 연주회”에 함께 참관하여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도 한층 더 수준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성가대원들이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월 정기연습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가대의 찬양은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가대 참여 문의: 총무 안덕문 집사 213-494-7500)

■ 주안에 라이프 개강

2016가을학기 주안에라이프가 8월24일 수요일 빨리채플에서 개강했다.

열네분의 감사님, 열두분의 주안에장금님, 60여분의 등록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했다. 이미란 전도사의 구수한 사회와 김재주 국장의 기도. 오병순파택 권사의 기타반주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박현동 목사께서 설교해 주심으로 개강예배를 드렸다.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과목에 대한 기대로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주께 하듯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가을학기 주안에라이프는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더욱 자랑할 만한 것은 직접구운 따끈한 봉어빵을 곁들인



아침 간식에 어르신 모두가 놀라워 하셨다. 수업은 과목별로 1교시는 초급반, 2교시는 중급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학기 과목으로는 바둑, 컴퓨터, 색소폰, 스트레칭/에어로빅, 건강댄스, 고전무용, 오토하프, 스마트폰, 성경교실, 배드민턴, 기타/노래교실, 편물반이 있다. 수강한 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점심식사는 이미 빨리 지역에서는 소문이 났

으며 주안에 장금님들의 그 맛과 영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므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듯 주안에 라이프의 어르신들께서도 그간 열심히 배운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소원해 본다. | 오병순 기자 |

제3기 주안에빛을 시작하면서/ 인도자들 소감



한대일 전도사 신실한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주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주안에교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국민 전도사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안에 빛 훈련의 시간동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자와, 훈련생 모



이성우 전도사 부족하고 자격도 안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안에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삶에서 실현 되길



강솔로 전도사 제3기 주안에 빛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개입하심이 최대한 생동감 있게 펼쳐지며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안에빛을 통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고 또한 그 진리를 깨달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길 기도합니다.

■ 중고등부 수련회



### God is Great

Prayer is something that I've been missing in my relationship with God for some time. That's why my relationship with Him felt distant, like there was something missing. I've been to many retreats with this church, but this one filled in that missing piece between me and God that connected us.



Caleb Yun

Spiritual highs are common at retreats. We all get soaked up with all the singing and music that we tend to forget how truly great God is and the reason why we worship Him. God is something more than a temporary source of joy and excitement.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our praise; his greatness no one can fathom" (Psalm 145:3) King David put it best, God is simply great and worthy of our earnest praise.

I prayed throughout the retreat for a true heart of worship, to praise God with the intent of wanting to know Him more. It was a spiritual struggle, to have each and every one of my actions to be of God's will. That's what I also prayed for, the resolve to carry out his will regardless of my own opinions and thoughts.

Prayer was initially difficult for me. It actually felt awkward praying to God because of the fact I don't pray often. It felt bad, but at the end of retreat I can confidently say that prayer became second nature, not only done when I'm in a time of need. Many people use prayer to ask for things from God, when they find themselves in a problem. God becomes our scapegoat when we pray like that. To pray to God I realized is when we give thanks to Him and to listen to his favors. I learned that prayer is all about communication, and God and I are not communicating if I pray only for myself.

Retreat was the place where I realized the true value of hav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Whenever I felt lonely or insecure, my friends helped strengthen me, especially during worship. I can't thank God enough for bringing me into this wonderful community of brothers and sisters.

Pastor Choi's message on unity in church stuck to me, for that's something I've wanted for our church as a kid. We are one body in Christ as a church, and already I feel the three chapels coming together as a family. Without this family in Christ, I wouldn't be able to be where I am today. I pray that as our church continues to grow in God's image that it will become a spiritual haven for others just as it is for me. Praise the Lord for all the good work he has done with our church!

### Ignited

Before retreat I really wasn't too in touch with God. I thought, "how could someone like me, falling asleep during worship and prayer, expect the Lord to truly affect me while there are people literally dying for Him?" I knew I had to fix my attitude, but I just didn't try and I would just say, "it's ok I go to church three times a day I'm going to Heaven, it's alright." However, God relit a fire in me on the second night of retreat.



Julian Jung

I have never experienced worship in such intensity like I did that night. That worship night, I will never forget it because that was the day I first completely gave my all for God in worship. I screamed, I yelled, I jumped, I cried and I smiled all for Jesus. That was day I was truly set free from the shame I had of worshipping God unashamed; it was a great night. It's crazy, a few months back I was playing video games while cursing at a computer screen and now thinking about it, I wasted my time. I feel so thankful to God because He was there through it all and one day through Matthew Han He said enough was enough. He led me to ICC, the biggest family I've ever had. Now after retreat I have a new mindset about God, I did my first ever DT on Tuesday, I've been worshipping the Lord with my Spotify music and I have been reading the Bible a lot more. I do believe that retreat has lit a fire in me that I know will not burn out again.

The third night was very important. This was the night where I the relationships I thought were relationships that were impossible to resolved became possible. The pastors thought of something genius. We did communion, but it was far from ordinary. Instead of keeping the bread and wine (grape juice) to myself, I had to share it with someone that I had a broken relationship. Through this activity, I was able to reconcile with a number of people in my life and God really allowed me to show His love to them as well as receive His love through them.



■ 중고등부 수련회



### Courage to Pray

Retreat really hit me and I believe I was changed in the process of my first ever retreat. I've never experienced that kind of worship before and honestly I think watching other people pray so hard inspired me and gave me more courage and pride to be Christian and to pray. During retreat I felt like every day I was having a connection with God and was becoming closer to him. I could see the signs that he was sending me, because I wasn't that sure that God was going to be with me during this retreat but as each day past I saw the signs and the blessings he has given me.



Christian  
Bandaphone

Before I left for retreat my dad didn't my decision and desire to go to church again. He made fun of me and teased me saying that I was only going to church and retreat for friends. He felt like that I wasn't going to take church seriously and that I'd eventually stop going as soon as it bored me. I shared this with my friends and they prayed for me and I realized how much God loved me and still loves me. Through my friends I experienced God's amazing love for me. Another blessing I received was on the 2nd night Isaac Han and I were having a talk about retreat and I remember him telling me that he had been praying for me every night to grow and that he is proud to see where I am now. I firmly believe that I did change ever since then and now every night I go into my room, lock the doors, blast some Hillsong and spend time with God.

My prayer is that my parents will someday attend ICCC at least once so they can experience church again. Every night I pray to have courage to talk to them about going to church and yesterday God gave me the courage to talk to my parents about it. Although they said that they'd need more convincing, I was glad to see my parents even thinking about the idea. I know that as long as I keep my faith, God will provide for me and my family.



### Experiencing Importance of Prayer

Coming to retreat I thought very lightly of our theme "Prayer." It was too generic, too plain, I felt like it didn't hit me hard like all the other past retreat themes did. Prior to retreat, my prayer life was lacking and in my life I never really experienced God working through my prayer. My prayer really only consisted of shallow content and rants riddled with my complaints about my life.



Isaac Han

Recently, there has been an immense amount of burden on my shoulders. Back when I first started as a praise team leader, I was immediately presented with high expectations, not only from those who were teaching me but as well as the crowd. I created a false responsibility, where I believed I was failing ICY in leading them to worship. Since then, I have been in constant prayer but eventually got frustrated with God after constantly praying without faith. Finally, on the 1st night of retreat God was working. God broke and tore apart my perception of the crowd's heart of worship; He changed them from the inside out and the end result was ICY coming together as one body to worship the One True God. At that point, all the pressure and stress that was piling up on me in the past half-year was lifted and I began to worship in freedom without worry which is exactly what God desires of me.

Before retreat, I had been praying a lot for the LA chapel students in particular. My prayer was that I could witness their chains being broken and them coming to God in perfect freedom, fully knowing that God is all that they need. Faithfully God came through, I was able to see them worship God wholeheartedly.

God had already done so much that I couldn't imagine the possibilities of the last night. In the middle of praise, we participated in a unique kind of communion. The goal of this type of communion was to reconcile any broken relationships. I was excited, nervous and anxious because this was another prayer I had in my life. My brother, Pastor Josh, told me to go down and pray and assured me that he'd handle praise. I got off stage filled with joy and thanksgiving and I immediately went to restore my relationships. The people that I was afraid of, came to me and in tears, I realized that God was trying to teach me something throughout retreat.

All these prayer requests that God took care of were the prayers that lead me to my frustration, that were the longest and that hurt the most. I treated God as if He was a genie in a lamp and that's why I grew frustrated at Him because He wasn't resolving my issues according to my time. I expected him to take care of my problems immediately but I realized that God was constantly telling me to exercise patience and wait for his timing.

■ 중고등부 수련회

## 부르짖음 · 눈물 · 환호 · 진지함 ‘그들은 아름다웠다’

〈1면서 계속〉 주는 것을 받아 먹기도 버거워 하던 학생들이 이젠 리더의 자리에서 몇 년 전 내가 서있던 그 자리에 다소 당황한 눈빛의 동생들을 챙기고 이끌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선생님이 이젠 든든한 사역자가 되어 예쁜 아내와 귀여운 아들의 아빠가 되어 많아진 역할만큼 넓어진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성이삭 전도사, 인턴쉽으로 시작해 이제 플러튼 중고등부를 차고 넘치게 섬기고 있는 강솔로몬 전도사, 사역자 못지 않게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찬양인도자로 열정적으로 섬겼던 조슈아 한은 햇병아리 전도사가 되어 익숙한 옷을 입은 듯 신참답지 않게 LA채플의 특색을 잘 이겨내며 중고등부를 배가시키고 있다.

산불로 인해 길이 막혀 2시간 더 지나 수양관에 도착했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마음의 준비를 흠트리지 않아 무척 다행스러웠다. 역시 예쁜 눈에는 예쁘게만 보이는 것 같다. 말씀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도 했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누군가는 버겁기도 하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해야 할까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어른들보다 성숙한 듯 보이는 아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3년 전 참석학생에서 이제 리더가 되어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세세히 매도하며 위로 한방 격려 두방 처방을 내리고 순서와 순서사이에 놓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치료를 하였다.

몇년전 첫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곁에서 함께하며 같이 울고 혼자 울면서 바라본 우리 아이들은 정말 멋진 녀석들이었다.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없는게 못내 아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매일 밤 각 채플에서 순서를 정해 올라와 아이의 중보기도카드를 받아 중보하는 기도팀이 기도로 후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중보를 위해 아이들의 기도제목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알게된 모든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삶의 무게를 홀로 지고가는 엄마를 위해,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라는 진실되고 노골적인 기도요청의 절실함은 중보팀으로 하여금 짧지 않은 시간 눈물로 기도하게 했다.

마지막 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지나도록 목이 터져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산을 내려가서도 하나님 뜻 안에 머물기를 눈물로 기도했다. 짧다기보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자정이 지나서 끝난 예배후에 그들만의 축제를 시작했다. 이 멋진 광경을 부모를 포함, 모든 성도가 보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다.

수줍어 눈도 잘 맞추지 못했던 아이가 멋들어진 속사포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른들을 만나면 얌전하게 두 손 모으고 인사 하던 아이가 신나는 리듬의 찬양에 맞춰 예쁘게 춤을 추기도 했다. 오빠의 기타에 맞춰 노래하고 용기가 필요한 시간을 지나는 친구를 격려해 함께 퍼포먼스를 준비한 팀도 있었다. 아이들 못지 않은 환호성을 받으며 등장한 강솔로몬 전도사의 퍼포먼스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었다.

바라보는 나의 눈에도 이리 아름답고 행복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대견해 하셨을까 그 순간 만큼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다. 이 어여쁜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라는 것이 감사했고 그 모습이 오염되지 않게 기도와 사랑으로 지켜주길 다짐해 본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만남(LA채플)



김명지 성도



안은정 집사



크리스티나 김 집사



정승숙 성도



송신디 집사



임종희 집사



박정임 집사

## 서로 다른 21명의 새가족, 동기는 하나 “말씀의 은혜 사모”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 8월 7일 오후 엘에이 채플에서는 높아진 수은주 만큼이나 화끈한 만남의 자리가 어여가고 있었다. 주안에교회를 등록하고 나면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행사인 “주안에만남”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새 두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모두 21명의 새가족분들이 참석하셔서 주안에교회의 목회비전과 훈련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와 설명을 들으시면서 주안에교회의 구성원으로써 첫걸음을 옮기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특히 평신도사역훈련원에서 이끄시는 훈련시스템인 “주안에훈련”, “주안에캠프”, “주안에학교”, 그리고 성경대학까지의 모든 과정은 소개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짐과 함께 꼭 도전해보고 싶은 동기유발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모두 훌륭히 소화해 내셔서 또다른 평신도 사역자가 탄생하시게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

최혁 담임목사님의 진행으로 이어진 각자 자기소개와 대화의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신중했던 분위기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색깔들을 재치있게 표현하시며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이 기회를 놓칠새라 한 눈치 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서로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에 나왔던 내용들을 퀴즈로 내시면서 친근해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셨다.

멀게는 브라질과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도 있



이건철 성도



이요셉/에스터 성도



정천영/정기연 집사



최영은 장로/최영자 권사



차보현 집사



조환성 집사



전정욱 권사



구줄리 집사



신광석 성도



임병재/문수인 집사

었고, 오시기 전에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미리 교회를 주안에 교회로 정하고 오셨다는 분도 있었다, 역시 말씀을 교회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신 분들이 대다수임을 확인하며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할 주안에교회의 미래를 베푼 감동으로 그려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안에교회의 목회철학을 소개하실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며, 말씀을 사

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강조하셨다.

비록 주안에교회에 새로이 등록을 하셨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직분을 감당하시던 분도 계시거란 생각이 든다.

여러가지 이유로 섬기던 그 곳을 떠나오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 설레임을 가지고 오신 새신자분들... 머지않아 주안에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오희경 기자 |

■ 권사회 소식(밸리채플)

## 손길이 필요한 곳 어머니의 마음으로 달려가요

조건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룰 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권사란 직분은 없으나, 교회에서 임명된 권사는 오랜 신앙생활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본이 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세워진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안예교회 밸리채플에 올해 처음으로 권사회가 세워지고, 회장에 안유은 권사, 부회장과 총무에 각각 김정자 권사, 장정보 권사, 그리고 31명의 시무권사들이 모두 함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밸리채플 권사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친 성도님들께 아침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새벽예배를 마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나 몇몇사람만이 남아 차를 마시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권사회에서 아침식사를 대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삼사오모 모여앉아 식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특히 여전도회와 권사회 회장을 한꺼번에 맡아 헌신하고있는 안유은권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주년 창립감사예배를 마

치고 나서 “온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기대이상으로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고 하면서, 앞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EM 청년부가 발돋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이번에 새로 선출된 20명의 피택권사들이 조만간 함께 일할 것을 생각하면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되시는 많은 은퇴권사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으며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행함으로 헌신하며,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마리아같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어머니같은 권사회의 모습이 될 때 우리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 김신실 기자 |

■ 어? 성경이 읽어지네  
(플러튼채플)

## 딱딱하던 성경구절이 흥미진진 ‘입체적’ 말씀공부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성경공부가 8월 18일 12주간의 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 반에 모여 12시까지 공부하고 점심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공부는 이에실 사모께서 오랫동안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3십 만여 명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성경공부의 특징은 성경을 읽되,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정치 상황과 정치인들의 움직임, 문화와 인종, 종교와 언어, 지리와 지역적 역학관계, 시대적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찰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핏 딱딱한 학문적 공부처럼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과정을 인도한 경험이 있으신 박상숙 권사님께서 해박한 지식과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식으로, 다이내믹하게 풀어가며 인도해주셔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말씀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문화, 정치, 역사, 언어, 사람들의 배경과 역학관계 등을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읽으니, 말대로, 어! 성경이 재미있게 이해되고 술술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분의 성도님들이 바쁜 생활에도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이신 박상숙 권사님은 심장병으로 병원을 오가며 투병하시면서도 복음전도의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강단에서 열광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조성운 기자 |

성경퍼즐  
정답

<7월호>

	사		십	일	조		
아	론		자	보	화	해	
비		아	가	보	갈		
이	달	리	아	고	라	아	
세		브		기		알	
벨		가	사	아	스	글	론
	세	사	귀	다		로	
	마	노	고		음	바	
	아	모	리		기		

7월호 당첨자: 박경원, 안유은, 오병순, 이지혜, 이영화, 정진복, 최중관, 황영옥

■ 마하나임 성가대 (플러튼채플)

#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서로의 위로와 격려 넘쳐요

여름 무더위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에 따른 계절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도 하네요.

지난 토요일 플러튼 채플의 마하나임 성가대가 뒷마당 풍치가 제법 괜찮은 조성운 집사님과 조근희 피택권사님 집에서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교우 한 분이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하며 주신 금일봉으로 갈비를 사서 굽고, 대원들이 한 가지씩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단합대회의 주제가 요리자랑은 아니었는데도 많은 대원들이 서로를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그리고 푸짐하게 준비를 해 오셔서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수고하신 대원님들! 많이 드십시오. 사실 성가대의 연습과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두 번의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아침 8시에 모여 연습을 합니다. 집이 먼 대원들은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에 오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격한(?) 지휘자 집사님의 강도 높은 연습, 아니 훈련을 받으며 두 번의 예배에 찬양을 부르고 남는 시간은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이것도 부족해 한 달에 한번, 주중에 모여 지휘자 부부님을 비롯한 임



원들이 준비한 저녁을 먹고 두 시간 이상 강훈련을 합니다.

주안에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마하나임 성가대원님들! 성가대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에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지만,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수고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게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미리 와서 식탁도 분위기 있게 잘 꾸몄습니다. 바닥에는 가을을 재촉하며 떨어진 때이른 낙엽도 깔고, 동편 하늘에는 둥글고 노란 달도 걸고, 별도 좀 뿌려 달고 말이죠. 분위기 좋아하는 집주인이 가스 불을 피워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 모임을 위해서 맑은 날씨에 시원한 미풍을 보내 더위도 식혀 주셨구요.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

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인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음식을 나누며 화기에 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박수소리도 나오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박현동 목사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신다고 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성가대에 합류하신 송상화 장로님과 송총자 피택권사님, 그리고 정인섭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대장님과 총무님,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안에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성도들과 찬양의 감동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성운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파스타 샐러드는 조리방법이 간단하고 상온의 상태로 상에 올릴 수 있으며 다른 보조 음식이 없어도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요리로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히기 적합한 음식이라 생각된다.**

**재료** \*파스타 드레싱 재료(다진 생강 1 작은술, 식초 1/3 컵, 오렌지 주스 1/4 컵, 식용유 1/4 컵, 참기름 1 작은술, Lipton Onion soup mix 1 봉지(1 온스), 꿀 1 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후추가루 1/4 작은술) 마른 파스타 8 온스 1 봉지(파배기나 리본 모양)



오이 1/2 개, 피망 1/2 개, 붉은 양파 1/2 컵, 토마토 2 (중간 크기), 당근 1 (중간 크기), 시금치 1/2 단, 만다린 오렌지 11 온스 1 캔(1 large size fresh orange

## Mandarin Pasta Tofu Salad

만다린 파스타 두부 샐러드



로 대체해도 좋다.), 단단한 두부 2 컵, 채친 알몬드 1/2 컵, 땅콩 1/2 컵(Optional)

- 조리법**
1. 위의 드레싱 재료를 병이나 큰 컵에 넣고 흔들어 잘 섞이게 하여 준비한다.
  2. 큰 냄비에 소금을 약간 넣은 물이 끓으면 마른 파스타를 넣고 9분 동안 쫄깃하게 삶아 찬물에 헹구어 놓는다.
  3. 오이, 피망, 토마토는 사방 1cm 크기로 썰고 당근은 잘게 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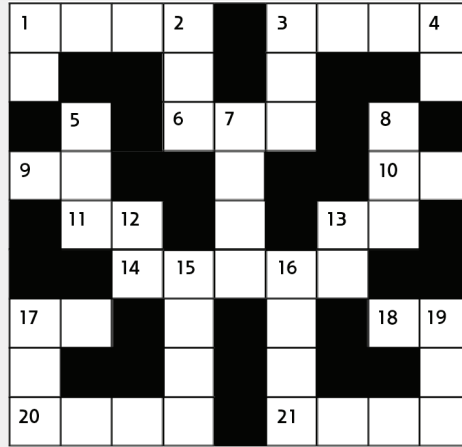
4. 만다린 오렌지는 캔의 물을 따라 버린다(오렌지를 쓸 경우 껍질을 벗기고 사방 1.5 cm 크기로 자른다).
5. 두부는 사방 1.5 cm 로 잘라 소금에 살짝 절여 식용유에 구어 놓는다.
6. 모든 재료를 큰 용기에 담고 준비된 드레싱을 잘 흔들어 섞은 후 부어 골고루 섞는다. 두부를 마지막에 넣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한다.



박창신 기자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1.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려 했으나 성령이 허락지 않아 마게도냐로 갔다(행 16:6-12)  
 3. 초대 예루살렘 교인으로 소유를 팔아 바치기로 약속하고 일부를 감춰 그 벌로 급사함(행 5:1-6)  
 6. 유니게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딤후 1:5)  
 9. 사울 왕의 아버지(삼상 9:3)  
 10. 다메섹의 아람 왕으로 앗수르의 명에서 벗어나려다 오히려 잡혀죽음(왕하 16:5-6)  
 11. "내가 ( ) 위에서 그들을 보며-"(민 23:9)  
 13. 아람어로 아버지이며 신약에 3번 나옴(막 14:36, 롬 8:15, 갈 4:6)  
 14. 솔로몬이 향기로 개발하여 통상함(왕상 9:26, 대하 8:17)  
 17. "모든 사람이 ( )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눅 2:3)  
 18.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공부를 한 후 예수 믿고 바울과 동행하려 전도사역을 함(골 4:14)  
 20. 다윗의 넷째 아들로 형 압살롬이 죽고 왕위 계승문제로 솔로몬과 다툼(삼하 3:4)  
 21. 재판에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하다(왕상 3:28)



- 하노라" (엡 5:32)  
 2. 바울의 협력자였으나 고린도 교회는 그로 인해 분열이 생김(고전 1:12, 행 18:24)  
 3. 구약 29번째 성경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경고와 예언  
 4.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 1대 제사장(레 8:12-13)  
 5.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삼하 3:7)  
 7. 바울이 2차 선교여행시 이 성과 루스다라에서 칭찬 듣는 청년동역자 디모데를 얻음(행 16:1-2)  
 8.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동서(룻 1:4, 14)  
 12.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13.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로 형 가인

- 이 시기하여 죽임(창 4:8)  
 15. 요시아의 막내 아들로 유대국의 마지막 왕(왕하 24:17-20)  
 16. 요압의 후예로 수공업가(대상 4:14)  
 17. 구약 제 28번째 성경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  
 19.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던 곳(요 19:13)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세로 문제> 1. "이 ( ) 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사라택시 Sara Taxi**  
 추정부허가업체  
 TCP 35881-B  
 Airport Permit #  
 LAX 11611242  
**(213) 408-6671**  
 공항 • 일일관광 • 경리리 • 아울렛 • 통역 • 요세미티 • 세코야 • 샌프란시스코 • 팜스프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 밸리채플 /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 수요영성집회 /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헬월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8:00pm

재방송: 매주(토) 1:0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9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장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